

오순절 후 다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6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일5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5 번 시편 4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2 Cor.) 6:1-13, 막(Mark) 4:35-41	정강섭 집사
찬 양 Anthem	“예 배”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Do Not Receive God’s Grace in Vai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은 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41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참된 경건에 한 없이 부족했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27, 합 32,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As God’s fellow workers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 6: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3 (주일)	6/24 (월)	6/25 (화)	6/26 (수)	6/27 (목)	6/28 (금)	6/29 (토)
	신29	신30	신31	신32	신33,34	수1	수2
본문	시119:49-72 사56 마4	시119:73-96 사57 마5	시119:97-120 사58 마6	시119:121-144 사59 마7	시119:145-176 사60 마8	시120-122 사61 마9	시123-125 사62 마1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26수 오후7:30)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왕하22:1-13)
토요 새벽기도회(6/29토 오전6:30)	“사람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 (사144:1-15)

지난 주일 (6/16) 말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 4:26-34, 고후 5:6-10)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또한 당대의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입니다(마7:28-29) 그렇다면, 예수님의 탁월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묻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Parable)”라는 방법을 통해,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막4 장)에서는 각각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씨 뿌리는 자의 비유”(막4:1-9)를 통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지?” 말씀하셨고, 2)“은밀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막4:26-29)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남과 감추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며, 3)“겨자씨의 비유”(막4:30-32)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화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마음)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씨앗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날마다 품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2)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에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3)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